공무원 사회의 폐쇄된 울타리

교수기고 공무원 임용·인사제도에 대한 고찰

한 상 연
〈사회대교수 행정학〉

중앙부처의 혁명적 조직개편으로 새상이 떠들썩하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 답답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신도시 건설은 건설부에서, 신도시 건설이 가져오는 교통 체증 문제는 교통부에서, 정보통신 기술 개발은 체신부·과기처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는 유선방송 관리는 문화체육부에서, 도대체 부처 할거주의와 영역 다툼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문민'이라는 단어가 붙은 정부이기에 '혁명'이 가능했을리라.

내친 김에 '혁명적 개혁'을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공무원의 세금 착복 사건, 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대형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2백56개가 다-랜을 만들고 세계 5백대 기업에 다수의 우리 민간기업들이 진출할 정도로 우리 민간 부문의 국제적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환경문제, 교통문제등 공공 행정분야에서의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어떠하며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그 대답이라고 한다. 과연 그것이 충분한 대답일까? 왜 삼성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보이고 외국에 전문기술자 모집광고를 내는 등 그토록 법석(?)을 떨었을까? 왜 가만히 복지부동하라는 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국제적으로 그들이 살아 남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는 이러한 경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경쟁의 합리적 규칙이 없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는 말은 들기에 상당히 거북스럽다. 교육시장의 개방, 대학종합평가제도 도입으로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말도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2~3년 계약으로 교수를 채용하고 기존 교수도 학생들에게 혹독한 강의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대에 타 젊은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인생경험을 멀리하며 도서관에서, 하숙방에서 법전을 달달 외우고 대표는 대학강의를 듣는 대신 고시문제의 적중률이 높은 고시학원에 다닌다. 대학에서 강의를 들고 학점을 따며 졸업논문을 쓰는 것이 이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다. 전인교육을 주장하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고시준비생에게는 과연 어떤 인간적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시켰을까?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도시행정론 시간에는 신도시 현장실습을 하고 행정정보체계론 시간에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열심히 작성하며, 회계에 관심이 있어 회계과에서 공법인 회계를 듣기도 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이 5급공무원이 되는 것을 필자는 교수생활 5년간 한번도 본적이 없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공무원이 된 것을 본적이 없으며 또한 그들이 시청, 구청의 세무과, 회계과에 취직하리라고 기대해 본 적도 없다. 전직 장관이 대기업의 이사가 되어 호강하는 것은 수없이 보았어도 실무경험 많은 기업체의 중견간부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본적이 없다. 연구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를 찾아다니는 교수는 많아도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미국의 학술대회는 많아도 특별한 귀빈으로 참여하지 않는한 학회에서 발표하는 우리의 공무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이렇게 특별해야 하는가? 민간기업체의 중견사원들은 최신지식의 습득을 위해 위성통신으로 미국대학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인시처 공무원의 세무업무조차 감독할 지식이 없는 우리의 중견 공무원들은 공부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많은 대학 졸업생이 어째서 시청 세무과에 들어갈 상상조차 하지 못하며, 양심바른 공무원이라 한들 공인회계사가 포진한 기업체를 상대로 하여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을까? 왜 대학에서 교수 및 동료학생들과 토론해서 얻은 지식, 현장견학에서 얻은 지식보다는 하숙방에서 암기한 지식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혁명적 공무원 임용, 인사 및 교육제도 개혁의 당위성 및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리라 본다. 우리 공무원의 경쟁상대는 싱가폴 공무원 뿐 아니라 우수 민간 기업체의 전문 사원이 돼야 한다. 장관이 나서서 피곤에 지친 공무원을 기업체 연수원에 2박3일로 입소시키는 1회성 전시행정은 행정개혁에 장애가 될 뿐이다. 현 제도하에서 2박3일의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무원 사회의 폐쇄된 울타리를 걷어내고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시급한 선결과 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북구청 세금 착복사건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수동적 공무원 민간기업 전문사원 본받아야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필요

열린소리

동문 만족시키는 동문회돼야

12월13일에 롯데 호텔에서 열린 경희대 총 동문회에 가 보았다. 입구에서 명찰을 써 주는데 모두 무슨 학과 몇 기라고 적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신방과 7기 김세준'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게 된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 명찰로서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 경제 ○○기라고 쓴 명찰을 보고는 나이조차 어림잡을 수 없어 누가 먼저 말 걸기 전에는 서로 눈을 피하며 멀뚱멀뚱 앉아서 어색한 합석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99%) 동문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과 몇학번이라고 입학년도 기준으로 표시하면, 나이에 맞춰 예의와 어법을 조정하는 한국의 인간관계 정서에 잘 맞을텐데 이것도 전통이라서 그런지 수십년간 불편함을 무릅쓰고 바꾸지 않는다. 신방 '71이라고 쓰고 옆에 근무처 이름까지 쓰면 얼마나 말걸기 쉬울까.

요즘 세계화 추세에 맞춰 정부도 기업 경영자적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며 조직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동문회 운영자도 기업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 고객(동문)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마음을 조사하고,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이 다른 회사(학교)만큼 보고는 나이조차 어림잡을 수 없어 누가 먼저 말 걸기 전에는 서로 눈을 피하며 멀뚱멀뚱 앉아서 어색한 합석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99%) 동문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과 몇학번이라고 입학년도 기준으로 표시하면, 나이에 맞춰 예의와 어법을 조정하는 한국의 인간관계 정서에 잘 맞을텐데 이것도 전통이라서 그런지 수십년간 불편함을 무릅쓰고 바꾸지 않는다. 신방 '71이라고 쓰고 옆에 근무처 이름까지 쓰

김 세 준
〈신방 71학번, 정보성 상무이사〉

의대, 총학단합 통한 투쟁해야

의대 학생회측은 11월말부터 비상총회를 거쳐 전면 수업거부에 들어가 현재 방학중에도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교수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에 지지를 하면서도 학교행정에 대한 과행적인 운행을 옳지 못하다고 보고 시험일정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의대 학생회는 투표를 통해 시험도 치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보이며 현재는 약 15일간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준비중이다.

강의 중요성이 복수학에도 불구하고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 학생들의 용기는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고수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보인다.

공간 조정의 문제라는가 도서관 시설미비등의 문제가 의대 한 단대만의 과업은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듯이 다소 주관적이며 빠른 단독 시위로는 한계가 있음듯.

앞으로의 계획에 총학이나 각 단대와의 단합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고수하는 편이 현 위치에서 경희 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리라.

김 종 호
〈정외 4〉

알림터

교수동정

라종일교수 영국방문

【서울캠퍼스】▲김종규(지리학과)교수 95년 1월4일부터 1월17일까지 공동연구를 위해 독일 방문. ▲라종일(정외과)교수 95년 1월4일부터 11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방문. ▲이윤상(회계학과)교수 95년 1월4일부터 20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 자료수집을 위해 방미.

【수원캠퍼스】▲방준(영문)교수 반역협회 회의차 북경, 동경방문 ▲미노와즈(일문)교수 자료수집차 일본방문 ▲김경태(건축)교수 세미나 참석차 일본방문 ▲정시춘(건축)교수 학술발표차 인도방문▲이선국(도예)교수 연수차 북경방문.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주)동서해운-건공불은, 95년 1월 5일까지 756-5761~6◆(주)합동전자통신=전공불은, 1월 15일까지 456-9766~9, 446-0156~9 ◆행동과학훈련원=전공불은, 1월 13일까지 424-3567~9 ◆(주)한독약품공업=경영, 회계, 1월 4일까지 527-5132~4 ◆한국의류시험연구원=화학, 1월 7일까지 925-2451 ◆(주)이림무역=전공불은, 1월 15일까지 712-1351 ◆(주)유광정보=상경계, 1월 10일까지 706-5907 ◆(주)한일철강=전공불은, 1월 10일까지 273-2144

【수원캠퍼스】◆남제석유(주)=섬유공, 1월10일까지 747-7716 ◆Albany international-Korea branch=무역, 경제, 영문, 경영, 1월10일까지, 576--4437 ◆한국의류시험연구원=화학과 대학원 졸업예정자, 1월7일까지, 925-2451 ◆(주)신일건업=건축,토목, 1월31일까지, 539-6495 ◆(주)삼환기류=토목,건축,기계, 전기, 상경, 1월6일까지, (051)633-8961 ◆(주)에스노벨티=경영,무역, 1월7일까지, 518-3709 ◆(주)이림무역=전공제한 없음, 1월15일까지 712--1351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최미영(경제3) ▲박오주(미교) ▲김현근(미교4) ▲김은정(의상91) ▲신수영(가관4) ▲김희철(치본4) ▲김동욱(약학2) ▲임경애(성악3) ▲유정하(가악3) ▲임재환(체육) ▲이현우(삼의원514)

【수원캠퍼스】▲이안철(영문4) ▲손무열(행정2) 박재훈(사회4) ▲윤호균(토목1) ▲박윤규(기계1) ▲이승복(전자4) ▲김용욱(화공) ▲정은승(도예4) ▲김동진(체육3) ▲장준선(핸드볼) ▲최강호(배드민턴)

동계특강

【서울캠퍼스】▲컴퓨터동계특강, 1월 18일까지, A타임-9시 50분~10시 50분, B타임-11시~12시, C타임-12시 10분~1시 10분, D타임-1시 20분~2시 20분, E타임-2시 30분~3시 30분, 정경대 3층 전산실B ▲한학특강, 95년 겨울 서울에서 만나는 공자, 2월 20일까지 매주 화·수·목 오전 10시~12시, 961-0125 ▲VOCABULARY 22000, 2월 24일까지, 정경대 305, ▲이재옥 TOEFL, 2월 14일까지 10시 40분~12시, 정경대 309호.

【수원캠퍼스】▲영어동계특강, 2월3일까지, 영문법및 독해-10시~11시10분, 아카데미 토플-12시20분~1시30분, 외대 234강의실

朔風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보스니아

보스니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스니아는 탄생전시대 개막과 일련의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 붕괴를 배경으로 지난 92년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뒤 곧바로 내전에 돌입했다.

내전 당사자들인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회교정부측은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 전형적인 민족분규다. 하지만 보스니아 내전 당사자들은 언어 표기법만 약간 다를 뿐 의사소통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

내전 발발 수개월 후인 92년 8월 구(舊)유고지역에 간 일이 있었다. 크로아티아 국경지대 검문소에서 만난 한 병사는 자신이 세르비아계지만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기 위해 크로아티아군에 입대해 세르비아계와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음에서 평화롭게 어울려 살던 이들이 어처다 형통을 따지면서 총을 드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보스니아 내전은 처음부터 서방의 주요 관심사였다. 내전발발 이래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보스니아 전황을 자세히 보도해 왔다. 뿐만아니라 유엔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 내전에 개입했고 서방이 휴전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유엔 직원들과 함께 보스니아내 난민수용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학교건물을 개조한 수용소의 한 귀퉁이 게시판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메모지들이 수없이 붙어있었다. 이 메모는 현지에서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들 난민은 혹독한 시련을 겪은 뒤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전쟁의 상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노인들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보스니아의 어린이들 중 정신질환자가 적지 않다. 어린 시절엔 충격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

보스니아 내전 현장을 보면서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이나 기록영화의 장면들이 오버랩 됐던 기억이 난다. 부모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폐허가 된 도시, 화살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 전쟁이라는 비극은 어느 곳에나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다.

한국도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얼마 안돼 대규모 전쟁을 겪었다. 미국 주도하의 유엔군과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했다. 2차대전 종전후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며 3년여를 끌다가 휴전협정 체결로 막을 내렸다.

결국 한국전쟁과 보스니아 내전은 각각 냉전과 탈냉전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분규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 한국전쟁은 냉전의 개시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것이 차이점이다.

아직도 언론에 비중있는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 보스니아 내전을 보면서 한번쯤은 한국전쟁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후 한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전쟁의 충격이 이 사회 어느 곳에 남아 있지나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奎)

외국어,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국어에 끌려 다녀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합니까?
국제화시대, 무역전쟁시대의 외국어는 전쟁의 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외국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I CAN DO IT"
25년 동안의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고다의 혁신적인 외국어교육 프로그램과 만나십시오.
세계 아홉나라에서 선발된 막강 멤리를 군단이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영 어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 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 전원 미국인교수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FIFTY-FIFTY
A CONVERSATION /LADO/ LINE BY LINE
영어청취·어휘/유학·전학·취업
AFKN/ TOEFL L/C /TIME
TOEFL /GRE/ GMAT / TOEIC
※문법, 독해, 작문, 발음교정, 청취등 국내 최고 교수진

최신 영어특강 프로그램
INTENSIVE S.L.E. COURSE
1일 2시간 주5회/ 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교수전원 미국인
INTENSIVE ENGLISH COURSE
영어만 사용, 석사학위 미국인 교수들에 의한 영어문법, 작문, 회화의 종합적 능력 완성을 위한 주5일 교육
:1일 5시간교육: ※미국대학공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파고다 → 미국 위스콘신
2~4개월 1일5시간교육 → 2~4개월 1일4시간교육
교육중 입학허가서 취득 교육중 대학 입학

일 본 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작문
스크린 일어회화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인 회화 (초급 Ⅰ·Ⅱ·Ⅲ)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전원, 일본 동문대학 석·박사출신

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독어강좌
프랑스인 불어강좌
중국인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비大
1일 3시간/1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비大 입학

세계 3번째로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보학원장), 홍성택 대원(보학원)

천년 하이테크 시장과 맞서게 만나는 교수진이 함께하는 -
파고다외국어학원